

# “환란을 통한 유익”

약 1장 1-8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한 결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고생 뒤에 축복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같습니다. 위기를 당함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었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환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신앙적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순종에서 시작된 고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에덴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난의 땅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 없는 삶이란 이 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삶의 태도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고보 사도는 대다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환란이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해 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나 고난이 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사용할 기회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낼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 1. 환란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약 1:2)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란’ 혹은 ‘유혹’으로 번역됩니다. 즉, 신앙적 박해를 말합니다. 환란을 기다렸다가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은 고난으로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정금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 장 11 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고난 당하게 되면 순수해지게 됩니다. 정결한 믿음이 됩니다. 환란을 통과한 사람은 순수해지게 되며, 겸손해 집니다.

### 2.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라

시편 119 편 71 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고난을 통해서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엎드려 있으니 비로소 강단에서 말씀하는 주의 종의 음성이 내 심금을 울리고 내 가슴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통하여 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성경 구구절절이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을 오래하다가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리면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곤고해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R. 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 3. 환란 때에 인내를 이루라

“(약 1:3-4)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얻게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위로와 감동을 통해 인내를 잘

마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마솥에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구워지기 전에 먼저 도자기가 불에서 나오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이 바로 도자기를 가마에게 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해 이스라엘백성은 도자기가 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약 1:4)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4. 환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약 1:5)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환란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란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면 망합니다. 사람을 붙들거나 자기 경험과 예측을 붙들면 망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평시에 알고 있는 말씀은 이론적입니다만 고난을 통과한 말씀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뼈에 사무치도록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 잡고 기도할 때 언제든지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2 명의 아들을 모두 그 학교로 보낼 정도입니다. 전교생 중에 88%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180 명 중에 25%가 서울대, 연/고대로 진학합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명문 학교가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에 신학대학교 부학장으로 자리가 보장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때가 1958 년 4 월입니다. 교장 취임식 때 학생이 8 명이었고, 학교의 재정은 부채가 많아서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일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미국에 한 성도가 이 학교에다가 수표를 보내줬는데 수표에 2,050 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채를 꼭 갚아야 될 그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1971 년에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왕 도와주시려면 학교가 더 조건이 좋아지고 발전되었으면 하니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또 응답되어서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솔러 목사님으로부터 22 만불이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점차 명문 학교로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 5. 환란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

“(약 1:6-7)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반드시 주의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위를 걷던 베드로도 결국 바람소리를 듣고 그만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중에 자기 자신을 보면 의심이 생기게 되며, 사탄은 이런 의심을 확대시킴으로 실족시킵니다.

믿음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고정된 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을 붙들고, 인내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였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인내를 이루어내신 경험들과 이후 받은 은혜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당신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은 무엇이였습니까? 그 당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였습니까?
4.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한 경험과 이후 응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참고하여)
5.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